



08-41 (통권 219호)  
2008.10.17

# CHAIRPERSON NOTE

## 경제 이슈

- 미국 실물경기 둔화 확대
- 한국 수출입 물가 상승세 지속

## 경영 노트

- 경영자의 '히포크라테스 선서'

## 사회 트렌드

- 벨리브(Velib)
- 한국판 '小황제' 바람

## 저널 브리프

- 거센 파도를 이기는 방법

## 洗心錄

-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7가지 언어 습관

## □ 미국 실물경기 둔화 확대

- FRB의 베이지북(10월 15일)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생산저하, 소비심리 둔화, 금융불안 확대 등으로 경기 둔화가 심화됨
  - 베이지북은 소비지출 및 제조업생산이 둔화되고, 신용조건은 더욱 강화되었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던 비금융부문의 경기도 둔화되었으나, 하지만, 농업부문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으로 기록
  - 미국의 9월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2.8% 급락한 가운데, 실업률은 6.1%로 상승, 소매판매는 -1.2%로 3개월 연속 감소, 8월의 기업재고는 전월 대비 0.3% 증가하는 등 경제지표가 저조한 실적을 기록함
  
- 국제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주요국들이 금리인하 및 공적자금 투입 등 공동조치로 금융시장이 회복되더라고, 실물경기의 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 한국 수출입물가 상승세 지속

- 한국은행(10월 14일)에 따르면 수출입물가(원화기준)는 수출물가와 수입물가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상승세를 지속
  - 국제 원유가격이 하락하였으나, 환율이 상승하고 원자재의 가격 상승분이 제품에 반영됨으로써 수출물가(원화기준)는 전년동월대비 27.4% (전월대비 4.6%) 상승
  - 수입물가는 국제 원유가격의 하락으로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여 중간재, 자본재 그리고 소비재 가격이 올라 전년동월대비 42.6%(전월대비 2.3%) 상승
  - 수입물가 중 원자재는 전년동월대비 59.1%, 중간재는 36.9%, 자본재는 22.7%, 소비재는 26.0% 상승
  
- 한편, 외환표시 수출가격은 전년동월대비 4.8% 상승(전월대비 3.2% 하락)하고, 외화표시 수입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7.2% 상승(전월대비 5.7% 하락)

□ 경영자의 ‘히포크라테스 선서’

- 최근 신용위기로 금융 회사 경영진의 탐욕과 무능을 지탄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면서 경영자에게도 의료인의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행동 규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확대
  - 경영자의 윤리의식과 능력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은 경영자에게 의사와 같은 프로정신이 없기 때문으로, 경영을 진정한 전문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성 제기
  
-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제창한 경영자를 위한 ‘히포크라테스 선서’
  - 경영자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장치로 사회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제시하는 경영자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문’>

구 분	내 용
경영의 목적	“나의 목적은 내가 맡은 회사를 위해 창출하는 가치를 높임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 자제	“나는 사적인 이익이 내가 경영을 위탁 받은 회사에 이익을 절대 해치지 않게 할 것을 서약합니다.”
불편부당 추구	“나는 나의 인종과 성별, 성적 취향, 종교, 국적, 정치 성향, 사회적 지위 등이 내가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 *Harvard Business Review* (10월)

- 경영자는 행동 하나가 선량한 소시민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집도하는 의사 이상의 엄중한 윤리와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임
  - 경영자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책무를 지님
  - 단, 모든 의사 결정에 앞서 사회 윤리적인 이익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 벨리브(Velib)\*

- 벨리브란 프랑스 파리가 지난해 7월 도입한 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
  - 자전거(Velo)와 자유(Liberte)라는 말의 합성어
  - 현재 자전거 대여소 1,450여 곳, 자전거 2만 600여 대로 운영
  - 29유로(약 4만 8,000원)의 회비를 내는 연간회원이 20만 명이 넘음
-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서울 강남구에서는 프랑스 벨리브와 비슷한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함
  - 단거리 교통수요를 자전거로 흡수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효과를 거둘 목적으로 실시됨
  - 강남구 이외에도 경남 창원시가 10월 22일부터, 서울 송파구는 이미 2월 중순부터 자전거 무인대여 서비스를 실시

### □ 한국판 ‘소황제’ 바람\*\*

- 자녀를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는 ‘골드맘’(gold mom)이 늘면서 자녀를 ‘한국식 소황제’로 키우는 바람이 거셴
  - 최근 소비심리가 위축됐어도 가정마다 1~2명뿐인 ‘귀한 자녀’를 겨냥한 고가 프리미엄 제품은 불황을 모르고 커지고 있음
  - 원래 소황제란 중국 특유의 산하제한정책과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의 여파로 생겨났는데, 중국 도시에서 과보호를 받으며 자라는 외동아이를 일컫는 말임
- 어린이 전용 미용실, 어린이 전용 스포츠클럽, 어린이 전용 영어학원, 명품 아동복 전문매장 등도 생겨남
  - 먹거리 불신이 확산되면서 더욱 고급제품을 찾는 골드맘들은 기저귀, 학용품 등에서도 고가 제품을 선호
  - 그러나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기와 좀 다른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성품의 인격체로 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전문가가 많음

\* 중앙일보(2008.10.16) 기사 참조

\*\* 한국경제신문(2008.10.16) 기사 참조

□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경제

■ 세계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는 중국경제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중국경제에 미칠 미국 발 금융위기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 최근 IMF, World Bank, ADB 등 주요 기관들은 2008년과 2009년 중국경제성장률을 9% 대로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음
  - 10월 8일 IMF는 2008년과 2009년의 중국경제성장률을 9.7%와 9.3%로 전망함으로써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성장둔화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
  - World Bank와 ADB도 2008년과 2009년의 중국 경제성장률을 9% 대로 예상하였으며, 2008년보다는 2009년에 둔화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

<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IMF			2007년 7월	2008년 1월	2008년 4월	2008년 7월	2008년 10월	2008년 7월	2008년 10월
			10.5	10.0	9.3	9.7	9.7	9.8	9.3
World Bank	11.1	11.4	2007년 9월	2008년 2월	2008년 6월	-	-	-	2008년 6월
			10.8	9.6	9.8	-	-	-	9.2
ADB			2007년 3월	2007년 9월	2008년 3월	2008년 7월	-	2008년 3월	2008년 7월
			9.8	10.8	10.0	9.9	-	9.8	9.7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World Bank, 「China Quarterly Update」 ;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

■ (금융위기의 영향)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은 수출 감소, 해외투자 손실 확대 및 잠재적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의 3중고를 겪을 것임

- 수출 감소 :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소비위축은 중국의 대외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2008년 1~8월까지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22.4%로 전년동기 대비 5.4%p 하락한 것임
-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은 각각 6.1%p와 6.3%p 감소함으로써 감소 폭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해외투자 손실 확대 : 미국 발 금융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해외투자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중국의 미국채, 페니매와 프레디맥 모기지 관련 채권에 대한 투자액은 총 9,000억 달러에 달해 금융위기로 인한 손실이 막대함
  -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투기 자금의 대량 유출입 사태는 중국의 금융안전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부상함
  
- 잠재적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달러가치 하락은 국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상승을 유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킴
  - 2007년 중국의 원유, 동, 대두(大豆)의 대외 의존도는 각각 47%, 40%와 45%로 국제 가격 상승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
  - 향후 국제 유가의 대폭적인 상승은 중국의 생산원가를 상승시키고 소비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킴
  
- 미국 발 금융위기가 중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은 수출선을 다변화 하고, 중국 진출 기업들은 현지화를 통해 중국 내수 시장 개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함
  -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은 동남아, 중앙아시아, 남미 등지로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은 현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한국으로의 역수출이 아닌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거센 파도를 이기는 방법\*

-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로 요동치는 경제상황에서 CEO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
  -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CEO는 대외환경과 내부역량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근거해서 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

■ 경제위기 상황에서 CEO가 추진해야할 위기 극복전략은 다음과 같음

<CEO의 경제위기 극복 전략>

구 분	내 용
1. 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	· 경제적으로 내외외환을 겪는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경영으로의 전환 및 기업 전반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함
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부혁신 추진	· 기업 내부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와 연계된 인재 확보와 인재 육성정책을 통해 기업 내부역량 강화가 필요
3.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세스 개선과 핵심역량 집중	· 회사 내부에서 고쳐야 할 비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운용비용의 최소화와 핵심사업 집중을 추진해야 함
4. '모험정신'의 고취	· 다가올 호황기에 대비해 어려운 때일수록 공격적인 선투자를 실시하는 등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험정신'의 고취가 필요

- 거센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는 파도를 향해 정면으로 뺏머리를 돌리는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도 CEO는 도전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
  - CEO가 모험을 멈추는 순간 기업의 생태계는 무너지고 위기는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짐

\* 이 글은 『Business』 (2008.10.6)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7가지 언어 습관

전직 뉴스앵커 백지연은 그의 저서 ‘성공을 부르는 힘’에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7가지 언어습관을 지적하였다.

1. **상습적으로 고민거리를 말하고 다닌다.** 주어진 일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난관에 부딪치게 마련. 그러나 당신의 잦은 푸념은 결국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돼’하는 광고를 하고 다니는 격이 되고 만다.
2. **모르는 것은 일단 묻고 본다.** 잘 모르는데, 설명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무시당할까봐’, ‘쑥스러워서’ 등의 이유로 넘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더 큰 실수를 부를 수 있다.
3. **이유를 밝히지 않고 맞장구를 친다.** ‘왜 좋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서지 않는다면 남의 의견에 함부로 동조하거나 맞장구치지 마라. 일이 안 풀리면 변명이나 원망의 대상에 당신마저 포함될 수 있다.
4. **‘yes’라는 답을 얻고서도 설득하려 든다.** 동조와 허락을 받아낸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득하려 들지 말라. 애써 당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재차 동조를 구하는 것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심하다는 인상만을 남길 뿐이다.
5. **“죄송해요”를 남용한다.** 습관적인 ‘죄송’은 배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내가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6.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는 말, “그럼 제가 해 볼게요”** 조직 내에서 가장 끔찍한 상황은 ‘공식화되지 않은 책임’을 수행해야 될 때이다. 당신이 당신 업무 외적인 일에 자주 나선다면 조직은 그걸 당연시 하게 된다.
7. **부정적 의견을 되묻는다.** 조직 내에서는 업무상 의견 차가 있을 수 있고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상대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세력들에 대해 “왜요?”, “뭐가 잘못됐죠?”하고 되묻지 말라. 쓸데 없는 감정노출로 경계심을 살 필요 없이 결과로만 말하면 될 일이다.

**“우리는 남의 실수는 검사의 입장에서,  
자신의 실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 브라질 격언 -